

차시별 교수·학습 지도안

코치카터 · Coach Carter (2005)

구분	내용
과목	진로와 직업(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병용 가능)
단원 · 차시	3-1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 1 차시(45~50 분) 대상: 고등학교
편명(원제·연도)	코치카터 · Coach Carter (2005)
성취기준	[12 진로 03-01] 진로의사결정의 요인과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재평가함으로써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학습 목표	①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자신의 의사결정 유형을 진단하고 보완점을 찾을 수 있다.

수업 환경 교사용 전자칠판(/board) · 학생 개인 단말 · 6 자리 수업 코드(QR)

교수·학습 과정

◆ 교사 활동 ○ 학생 활동

단계	시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7 분	◆ 수업 코드·QR 안내, 입장 확인. ◆ “이길 수 있는 팀을 멈춰 세운 코치,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라고 물으며 계약서로 시작하는 이야기임을 연다. ◆ 자유 진행 모드로 전환(문 열기).	—

단계	시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전개	25~30 분	○ 각자 속도로 이야기를 읽는다. 잠긴 체육관 앞 선수의 선택(선택), 시즌을 멈춘 코치에 대한 판단(입장), 운영위원회 표결 결과(예측)에 응답한다. ◆ 응답이 모이면 분포를 공개(모으기)하고, 특히 코치에 대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을 “같은 상황, 다른 결정 방식”으로 연결해 개념 카드(감정적/의존적/목표 지향적 결정형)로 넘어가게 한다. ○ 활동 1 「나의 진로 의사 결정 유형 검사」: 척도 문항에 응답한다. ○ 활동 2 「총점으로 내 유형 찾기」: 검사 총점으로 자신의 유형을 확인해 적는다(15 자 이상). ○ 활동 3 「내 유형의 특성과 보완할 점」: 유형의 강점과 보완 과제를 서술한다(50 자 이상). ◆ 순회하며 검사에 “좋은 유형/나쁜 유형”이 없음을 반복해 안내하고, 보완점을 다음 결정 상황에서의 행동으로 적도록 발문한다.	활동 1(검사)과 활동 2(유형 확인)는 칠판·피드에 노출되지 않는 개인 활동이다. 유형을 학급 앞에서 호명하거나 유형별로 손들게 하지 않는다. 공유 단계의 대상은 활동 3 이다.
정리	10~13 분	◆ 모두 모여(gather) 실행, 공감 TOP3 로 「특성과 보완할 점」을 함께 읽는다. ◆ 심화 해금(문 열기). ○ 심화: 꼬리질문 답변, 친구들의 답 피드 읽기·공감, “나의 결정에 어디까지 개입할까” 직업 자료 탐색. ◆ “유형은 우열이 아니라 경향”이라는 엔딩 문구로 차시를 맺는다.	이 편은 영상 없이 이미지·연출 화면으로 구성된다.

평가 및 기록 연계(세특)

활동 2·3(유형 진단과 보완 계획)이 세특 초안의 중심 근거가 된다. [12 진로 03-01]의 “재평가·점검” 요소와 직결되므로, 이후 진로 상담·학업 설계 지도에서 이 차시의 유형 진단 결과를 참조하면 연계 기록이 쉬워진다. 관찰 포인트: 자기 진단의 수용 태도, 보완점을 구체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

※ 본 수업은 학생 자율 진행(self-paced) 방식으로, 교사는 진행을 통제하지 않고 입장 안내·응답 공개·심화 해금 시점만 관리한다.